

# 화왕산 억새 태우기

김 동 일 (방재설비부장 · 소방기술사)

화왕산(火旺山)에는 일년에 세 번 불꽃이 핀다. 한 번은 사람이 지핀 불꽃이고 두 번은 자연이 피워내는 불꽃이다.

자연이 피우는 불꽃의 하나는 봄의 진달래이다. 이른 봄 화왕산의 가파른 언덕은 진달래 꽃잎으로 온통 붉게 물든다.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색이 짙어져 멀리서 바라보면 산 전체에 시뻘건 불길이 훤히 타오르는 듯 하다.

다른 하나는 가을의 억새이다. 이번에는 붉은 불꽃이 아니라 가녀린 하얀 불꽃이다. 잡목 하나 없는 산 정상의 넓은 평원의 억새는 마치 하얗게 변신한 불꽃과 같다. 이 두 불꽃 덕분에 화왕산은 당당히 명산으로 기억되고 있다.

진달래의 불길이 일기 전에 사람들은 또 하나의 불꽃을 피운다. “억새 태우기” 축제다. “불의 산, 큰 불피”라 부르는 이 산은 불이 나아만 풍년이 들고 평화롭다고 하여 정월 대보름달이 뜨면 억새를 태운다.

억새태우기는 한 마디로 장관이다. 겨우내 바짝 마른 억새는 마치 기름을 끼얹기라도 한 듯 활활 타오른다. 순식간에 산 정상 넓은 분지를 모두 태우고 까만 재만을 남긴다. 불길이 이는 것이 아니라 화염이 춤을 춘다. 흥에 겨운 불꽃은 스스로 허리를 자르고 머리채를 흔들며 하늘로 오른다. 먼 옛날 화산이 폭발할 무렵 화왕산의 모습이 그랬을 것이다.

△정선의 민둥산 △제주 한라산 △밀양 사자평고원 △포천의 명성산은 △창녕의 화왕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5대 억새 명소로 알려져 있다.

민둥산의 억새는 보다 많은 봄나물을 위해 한줌 재로 변하고, 한라산 억새는 부드러운 목초를 토해내기 위해 까맣게 탄다. 사자평고원의 억새바다는 그 크기로서 국내 최대를 자랑하며, 명성산 억새밭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억새축제 기간에는 등산로가 딱 막힐 만큼 인산인해를 이룬다. 혹여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위치한 덕으로 얻어진 “명성”이라 한다면 섭섭한 말일까?

억새평원 화왕산 정상에는 화산이 폭발할 때 생긴 분화구가 있는데 후일 큰 못이 되어 용지(龍池)라고 불렸으며 창녕 조씨 득성의 전설이 유래된 곳이기도 하다.

신라 때 한림학사 이광옥의 딸 예향(禮香)이 어려서부터 질병을 앓아왔는데 화왕산 못이 영험하다 하여 그곳에서 목욕재계하고 기도한 뒤 돌아와 병도 낫고 아들까지 낳았다. 겨드랑이 밑에 卍자가 있어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더니 卍자로 성을 내렸고 그 아이가 장성하여 진평왕의 사위이자 창녕 조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가녀린 하얀 불꽃, 억새의 모습 속에는 쓸쓸함이 숨어있다. 늦가을을 보내는 듯한 손짓이 그렇고 바람에 흔들려 버석거리는 메마른 소리가 그렇다. 그래서 억새는 불태워 보내야 하나 보다. 단풍 명산에서 부대끼기보다 억새 초원에서 흐느껴보라 했다던가. **FILK**